



## 인쇄로 여는 뉴미디어 세상

지난달 KINTEX에서 개최되었던 제15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는 '인쇄로 여는 뉴미디어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시대변화와 흐름에 걸맞은 설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기와 물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나 너무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하고 있으니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기와 물의 오염이 인류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각종 시그널을 받고 있다.

인쇄 역시 국민생활과 문화산업성장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세상도 인쇄로 열어 간다는 엄연한 현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번 전시회와 함께 나흘간 여덟가지 테마로 열렸던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쇄경영전략'이었다.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 온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어디서나(everywhere)라는 뜻의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신조어로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에는 유비쿼터스를 '두루누리'로 표현하고 있다.

컨퍼런스의 테마도 인쇄 틈새시장의 개발전략, 10년후의 세계인쇄시장 전망, 디지털 인쇄시장 현황과 전망, 뉴미디어 시대의 인쇄신기술 동향

등 인쇄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는 반응이다.

첨단전자산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고 나면 생소한 용어와 개념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평균적 선진 국민 생활 수준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컨퍼런스는 사전 등록제로 참가자를 선정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좌석을 꽉 메운 채 열기속에 진행된 것도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의 규모에는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 일반국민에게 인쇄를 보여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인쇄인이 보기에는 내용이 빈약(?)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처음으로 전문 전시장에서 열렸지만 대형기계 메이커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드루파 등 세계메이저 전시회에 익숙해 있는 인쇄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2008년에는 16회째로 30년전통을 잇게 될 KIPES가 명실공히 국제규모로 발돋움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세계 굴지의 인쇄기재전이 열려야 한다.

뒤늦게 시작한 중국인쇄기재전에는 국내 인쇄인들이 대규모로 참관하는 등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에 하나뿐인 국제인쇄전시전시회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이다.

인협, 이앤엑스 등 주최측이나 대형기계 메이커, 대리점 등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오세의 편집주간